

세계화의 물결에 대한 대처 방안 모색

곽 인 숙 (우석대학교 의상·주택학부 주택 전공 교수)

Jim Moran의 가정학과 인간과학에서의 세계화, 가족생활과 미래의 연구환경에 관한 논의는 이미 우리에게 도달해 있는 현대사회의 특성들과 미래의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들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과 내용을 정리해 준 점이 높이 평가된다.

Moran에 의하면 세계화, 문화적, 상황적 관점은 기존의 사고에 조금 무엇인가를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론의 일부를 구성하는 중대한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제는 가정학의 독특함은 감소되고, 시간과 공간, 학문적 경계도 사라짐으로써 연구방법도 과거와 다른 문제지향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가정학 분야의 연구도 학제간 상호영향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현대사회가 가정학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specialists-generalists'라는 주장은 오늘날의 새로운 주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Moran의 주장에 동의하는 바이다. 즉 이는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가정학자의 모델은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학문이나 기능의 영역을 뛰어넘어 팀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식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견해는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가정학의 범주 내에서 맴돌던 우리 가정학자들이 다른 분야의 연구자와 함께 연구하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새로운 체제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배우게 됨으로써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삶을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연구에서 갖추어야 될 다양한 측면들(예;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동료를 찾기, 본질적으로 다른 분야와의 통합된 연구를 통해 새로운 통찰력을 얻기,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도 되도록 다양함과 다문화적 견해를 포함시키는 것, 새롭게 얻어지는 정보나 지식을 통해 실제적용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등)은 모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명제이긴 하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적용시키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과 연구방법의 적절한 적용, 적합한 해석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동일한 현상에 대한 견해가 다를 경우 연구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것인지, 조사대상의 선정에 따른 차이인지,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서

유래한 것인지, 아니면 연구자의 학문적·문화적 견해가 다르기 때문인지를 규명해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연구결과를 다양한 상황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현실적인 해석의 차이, 적합한 연구방법의 적용을 명쾌하게 규명해내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을 가지긴 했으나 가정학분야의 연구자들이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고, 해석의 다양함을 추구하고, 실제적용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다시 강조한 점을 매우 바람직한 논의라고 보여지며 총체적인 관점에 대한 시각을 잘 정리해준 Moran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세계화와 한국 가정생활문화의 변화에 대한 박명희 교수의 연구는 인터넷망으로 연결됨으로써 세계는 정보화, 세계화의 물결 속에 휘말리며 혁명적인 변화 - 가정기능의 사회전이의외에 사회구조적 변화, 인간의 생활양식에서 근원적 변화 등 광범위한 생활문화의 변화를 취급한 매우 가치있는 논의로 생각된다.

세계화에 의한 한국가족가치의 변화는 가부장적 가족주의에 근거한 가부장적 가족문화로부터 양성평등과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가족질서의 정착을 가져왔으나, 전통적 유대요인인 씨족이나 혈연관계와 같은 요인들은 세계화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그 힘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가부장적 가족윤리의 해체를 대체하고 가족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양성평등적 열린 가족주의'의 새로운 정립을 위해 새로운 가족윤리와 가족문화를 정립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는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 또한 성숙된 세계인으로 통합적인 복합적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자세와 자신의 고유성을 지키고 남의 문화를 인정하는 다원적 사고, 다양한 문화를 복합하여 수용할 수 있는 열린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정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야될 필요성, 가정이 이타심의 교육장소로서 역할을 해야될 것이라는 주장의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사료된다.

단 연구자의 해석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가족 내에서 가족이 공유하던 가전제품들이 개별소비화되면서 가족원 내부에서 함께 소비하면서 대화를 했던 의사소통 방식이 무너지고 가족구성원간의 공유가치가 사라져 가족내부에서의 대화단절로 인한 세대 갈등이 커지게 되는 부정적 영향을 정보화의 부작용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합하지 않은 해석으로 사료됨.

둘째, 가족공동체 문화의 육성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증대를 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며, 중요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즉 각 개인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적 관계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지며 공동이익을 강하게 의식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탈바꿈시킴으로서 사회적 결속을 다지는 힘이 되며, 인간의 도덕심은 중요한 자원이며,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배양된다. 사람들이 가장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가장 전형적인 영역을 가정으로 보고, 이타심, 도덕심, 착한 심성 등은 어렸을 때에 길러지는 것이고 가정이 아이를 기르고

사회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볼 때 가정이 이타심적인 인간을 만드는 공장이며 도덕심을 함양하는 장소가 된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이타적인 아이로 키우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 오늘날의 어린이들은 일찍부터 사회화된 양육이 이루어지므로 다양한 보육기관과 교사들의 영향이 과거와는 달리 일찍 시작되므로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까? 또한 이타적인 어린이가 경쟁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이룰 수 있을까 우려되지는 않는지?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을 지혜롭게 버틸수 있는 바람직한 미래를 제시해 주신 박명희 교수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